

사람해부학 용어에 대한 한·양방 비교 연구

김수명*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for Anatomical Terms in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Kim, Soo-Myung

Dept. of Anatomy, Oriental medical college, Taejon University
96-3, Yongun-dong, Tong-gu, Taejon, South Korea, 300-716

Anatomical terms is very important for the whole medical area. In the past, medical student have confused with the anatomical terms which were base on Japanese-Chinese. So they have to be made easily for reading and learning. Fortunately the anatomical terms in Korean had completely made through the fourth edition.

According to the oriental law and customs human dissection was prohibited, therefore human anatomy naturally undeveloped.

In this study, on the view of the Korean terms carried out the comparison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anatomical terms in osteology and splanchnology. The oriental anatomical terms expressed with only looking at and touching the part of the human body. The gross structure of the osteology, is similar to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but there's no detailed nomenclature of the bone. Instead of it, they expressed connection to acupuncture point or disease in the human body. So it's difficult to find out the anatomical terms of the splanchnology like recent ones.

Key words : Anatomical terms, Osteology, Splanchnology, Oriental medicine,
Western medicine

I. 서 론

한의학의 모체가 되는 중국에서는 청나라시대의 왕청임이 1797년 현제의 하복성 난현의 도지진일 대에 유행성소아전염병이 만연되어 많이 죽은 어린아이시체에서 장기를 직접보고 도보를 작성하였다. 그는 기존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의림개착' 전 2권을 간행하면서부터 해부학의 발달이 이어졌다¹⁾.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해부가 법적으

로 뿐만아니라 사회관습이 금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한의학에서의 해부학은 크게 위축되어 있어 사람해부학에 대한 명칭도 오늘날의 서양해부학처럼 부분 부분 세밀하게 표현되지 못했다. 따라서 해부학명칭이 난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명칭을 경혈자리와 연결지어 부르거나 또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불리어졌다.

해부학용어는 모든 의학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다. 몇년전 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의학용어는 대부분 일본식 한자어로 되어 있어 한문이 없으면 혼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의 언어 습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쓰기에 불편하였다. 또 서양에서 천년을 넘게 써온 잘못된 용어를 문화적 바탕이 다른 우리가 그들의 습관에 따라, 또한 편으로는 식민지통치를 하며 못되게 굴었던 나라의 용어를 우리주권국가로써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²⁾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989년 대한해부학회에서 용어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부학용어집' 시안을 완성한 것을 시작으로 용어를 다듬고 고치는 일을 해 1996년 넷째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결국 해부학용어가 바꾸어지게 되어 점진적으로 모든 의학용어가 바뀌어지게 되었다.

예컨대 한자어로 된 골을 소리나는데로 표현한다면 뼈의 골(Bone) 또는 머리뼈에 들어있는 골(Brain)을 뜻하는 혼동을 가져 올 것이다. 바뀐 우리말 용어는 골(Bone)은 뼈로 표현하였으며 모두 이러한 방식의 순수한 우리말로 고쳤다. 아래 팔(Forearm)을 이루는 2개의 뼈는 노뼈(Radius)와 자뼈(Ulna)이다. 노뼈는 손뼈와 이어져 있어 자뼈 앞으로 노를 젓듯 왔다갔다 함으로써 손의 엎침과 뒤침을 하게 하는데서 붙여진 이름이고, 자뼈는 아래팔의 안쪽에 있는 뼈로서 길이를 쟀 때 이뼈를 어렵으로 한자로 쳐서 쓰던데서 따온 이름이다.

북한은 소위 '말다듬기 운동'으로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조어나 방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³⁾ 최근 한국에 건너온 북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영어와 한문이 많아서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고 한 말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나라의 영토를 잊는 것보다 언어, 문화를 잊는게 더 크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미국의 록 음악 파급을 막아 자기네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시간 이상의 프랑스 음악을 방송하도록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바뀐 우리말 새용어가 골학에서는 북한의 용어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리는 한약재 중 한문으로 칼근, 질경으로 표현하는데 북한에서는 수순한 우리글로 칡, 도라지라고 쓴다. 장차 통일된 우리나라를 바라본다면 용어의 동일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에서는 동의학이라고하여 국가가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중의학이라하여 현법에 명시되어 있어 세계의 최고의학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천년의 역사가 있는 한의학이 이제는 특성을 지키면서 해부학용어의 통일성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듦다. 발표된 해부학용어의 동·서의학적 비교에 관한 논문^{4,5,6)}은 몇편 있으나 주로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으며, 바뀐 우리말 새용어를 사용하여 양방적인 측면에서 바라본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연구자료 및 방법

1. 연구자료

사람해부학의 우리말 새용어는 1996년 대한해부학회에서 발행한 해부학용어⁷⁾ 넷째판에 맞추었다.

한의학용어는 황제내경 영추편⁸⁾을 주로했으며, 몇 종의 논문중 동·서의학적 해부학용어 비교^{4,5,6)}를 참고하였다.

2. 연구방법

사람해부학용어(해부학, 조직학, 발생학) 해부학을 택했으며, 해부학중에서도 골학과 내장학의 일부분을 비교 연구하였다.

제1장 일반용어에서는 몸부분의 머리, 목, 가슴, 배, 등, 살, 팔다리를 다루었다. 몸부분에서는 정식 해부학명칭은 아니지만 사람몸에 대해 사라져가는 표현은 민족생활어사전⁹⁾을 참고 하였다.

제2장 골학에서는 뼈에 관한 일반용어, 몸통뼈대, 팔다리뼈대를 다루었다.

제3장 내장학에서는 소화기계통, 호흡기계통, 비뇨기계통을 다루었다.

우리말 새용어가 한의학용어에 표현되지 않았다 해도 바꾸어진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나열하였다.

III. 결 과

제1장 일반용어(GENERAL TERMS)

몸부분(PARTS OF BODY)

우리말 새용어	한의학 용어
머리(Head) 이마부위(Frontal region) 마루부위(Parietal region) 뒤통수부위(Occipital region) 관자부위(Temporal region)	수액
얼굴(Face) 눈부위(Orbital region) 코부위(Nasal region) 입부위(Oral region) 턱골부위(Mental region) 눈아래부위(Infraorbital region) 볼부위(Buccal region) 광대부위(Zygomatic region)	침골, 침, 후산골, 두횡골 면목 비, 천빈, 명당 구, 순구, 육지
목(Neck) 목빗근부위(Sternocleidomastoid region) 빗장위삼각(Supraclavicular triangle) 목덜미부위(Nuchal region)	목하 협, 합 관, 관골 경, 경항 흉유유 액, 액지, 각 액, 액지, 각
가슴(Chest) 큰가슴근부위(Pectoral region) 젖부위(Mammary region) 젖아래부위(Inframammary region) 겨드랑부위(Axillary region) 겨드랑(Axilla)	복 흉협 심복 계협 제
배(Abdomen) 갈비아래부위(Hypochondric region) 명치부위(Epigastric region) 옆구리부위(Lumbar region) 배꼽부위(Umbilical region) 샅굴부위(Inguinal region) 두덩부위(Pubic region)	곡골 배척 저견 견요 찬상지 노주 주비 완수 수배 장
등(Back) 척주부위(Vertebral region) 엉치부위(Sacral region) 어깨뼈부위(Scapular region) 어깨아래부위(Infrascapular region) 허리부위(Lumbar region)	어제, 어, 수어복
샅(Perineum) 팔(Upper limb) 위팔(Arm) 팔꼽(Elbow) 팔오금(Cubital fossa) 아래팔(Forearm) 손목(Wrist) 손(Hand) 손등(Dorsum of hand) 손바닥(Palm of hand) 엄지두덩(Thenar eminence) 새끼두덩(Hypothenar eminence) 손허리(Metacarpus) 손가락(Fingers) 엄지손가락(Thumb) 집게손가락(Index) 가운데손가락(Middle finger) 반지손가락(Ring finger) 새끼손가락(Little finger) 손가락바닥(Palmar surface of fingers) 손가락등(Dorsal surface of fingers)	본절, 오지골 수지 모지, 대지 식지, 대지차지 중지 무명지, 소지차지 소지

다리(Lower limb)	하지, 각
불기(Gluteal region)	둔둔묘
불기고랑(Gluteal sulcus)	고슬찌
엉덩이(Coxae)	천천완
넓적다리(Thigh)	족족흔
무릎(Knee)	족부
다리오금(Popliteal fossa)	족저
종아리(Leg)	부, 족부
장딴지(Calf)	족저
발목앞부위(Front of ankle)	완
발목뒷부위(back of ankle)	부골
발(Foot)	
발꿈치(Heel)	족모지, 대지, 족대지
발등(Dorsum of foot)	(족모지)차지, 대지차지
발바닥(Sole of foot)	중지, 족중지
가쪽발모서리(Lateral margin of foot)	(족소지)차지
안쪽발모서리(Medial margin of foot)	족소지
발목(Tarsus)	
발허리(Metatarsus)	
발가락(Toes)	
엄지발가락(Great toe)	
둘째발가락(Second toe)	
셋째발가락(Third toe)	
넷째발가락(Fourth toe)	
새끼발가락(Little toe)	
발가락바닥(Plantar surface of toes)	
발가락등(Dorsal surface of toes)	

제2장 뼈학(OSTEOLOGY)

뼈대계통(SKELETAL SYSTEM)

우리말 새용어	한의학 용어
일반용어(General terms)	
뼈막(Periosteum)	
뼈속막(Endosteum)	
치밀뼈(Compact bone)	
해면뼈(Spongy bone)	
물렁뼈부분(Cartilaginous part)	
몸통뼈대(Axial skeleton)	
팔다리뼈대(Appendicular skeleton)	
긴뼈(Long bone)	
짧은뼈(Short bone)	
납작뼈(Flat bone)	
불규칙뼈(Irregular bone)	
공기뼈(Pneumatic bone)	
뼈끝(Epiphysis)	
뼈몸통끝(Metaphysis)	
뼈끝연골(Epiphyseal cartilage)	
뼈몸통(Diaphysis)	

1. 몸통뼈대(AXIAL SKELETON)

우리말 새용어	한의학 용어
1) 머리뼈(Skull) 머리뼈공간(Cranial cavity) 솟구멍(Fontanelles) 눈확(Orbit) 코안(Nasal cavity) (1) 날개머리뼈(BONES OF SKULL) 마루뼈(Parietal bone) 이마뼈(Frontal bone) 뒷통수뼈(Occipital bone) 나비뼈(Sphenoid bone) 관자뼈(Temporal bone) 별집뼈(Ethmoid bone) 얼굴머리뼈(Facial cranium) 코선반뼈(Inferior nasal concha) 눈물뼈(Lacrimal bone) 코뼈(Nasal bone) 보습뼈(Vomer) 위턱뼈(Maxilla) 입천장뼈(Palatine bone) 광대뼈(Zygomatic bone) 아래턱뼈(Mandible) 목뿔뼈(Hyoid bone)	로 천문, 뇌호 산각골 등운골 침골, 침, 후산골, 두횡골 빈골
2) 척주(VERTEBRAL COLUMN) 척추뼈(Vertebra) 목뼈(Cervical vertebrae) 고리뼈(Atlas, First cervical vertebra) 중쇠뼈(Axis, Second cervical vertebra) 솟을뼈(Vertebra prominens, Seventh cervical vertebra) 등뼈(Thoracic vertebrae) 허리뼈(Lumbar vertebrae) 엉치뼈(Sacral vertebrae) 엉치뼈꽃(Promontory) 꼬리뼈(Coccygeal vertebrae)	척 척추, 추골, 려골 경골, 천주골, 시태골 헝골 헝골 대추, 대추골, 상추, 상절, 저골 배골 요골, 요추
3) 가슴우리뼈(BONES OF THORAX) 갈비뼈(Ribs) 참갈비뼈(첫째-일곱째) True ribs(first-seventh) 거짓갈비뼈(여덟째-열두째) False ribs(eighth-twelfth) 뜬갈비뼈(열한째-열두째) Floating ribs(eleventh-twelfth) 갈비뼈연골(Costal cartilage) 첫째갈비뼈(First rib) 둘째갈비뼈(Second rib) 복장뼈(Sternum) 복장뼈자루(Manubrium of sternum) 빗장파임(Clavicular notch) 목아래파임(Jugular notch) 칼돌기(Xiphoid process) 가슴우리(Thoracic cage) 가슴안(Thoracic cavity) 갈비사이공간(Intercostal space) 명치각(Infrastrernal angle)	흉, 흉골 늑, 협골 옹증골 설골, 구미 흉, 흉골 흉, 흉골 기골

2. 팔다리뼈 대(APPENDICULAR SKELETON)

우리말 새 용어	한의학 용어
1) 팔뼈(BONES OF UPPER LIMB) (1) 팔이음뼈(Shoulder girdle) 어깨뼈(Scapula) 봉우리(Acromion) 빗장뼈(Clavicle) (2) 자유팔뼈(Bones of free upper limb) 위팔뼈(Humerus) 노뼈(Radius) 자뼈(Ulna) 손뼈(Bones of hand) 손목뼈(Carpal bones) 손배뼈(Scaphoid bone) 반달뼈(Lunate bone) 세모뼈(Triquetral bone) 콩알뼈(Pisiform bone) 큰마름뼈(Trapezium) 작은마름뼈(Trapezoid bone) 알머리뼈(Capitate bone) 갈고리뼈(Hamate bone) 손허리뼈(Metacarpal bones) 손가락뼈(Phalanges) 첫마디뼈(Proximal phalanges) 중간마디뼈(Middle phalanges) 끝마디뼈(Distal phalanges)	갑, 견갑 우골, 견우 횡골, 주골 당골, 원 지골 지골 지골 지골 각 관 과골, 격 건골 횡골, 하횡골
2) 다리뼈(BONES OF LOWER LIMB) (1) 다리이음뼈(Pelvic girdle) 볼기뼈(Hip bone) 볼기뼈절구(Aacetabulum) 절구오목(Aacetabular fossa) 절구폐임(Aacetabular notch) 엉덩뼈(Ilium) 궁동뼈(Ischium) 두덩뼈(Pubis) 골반(Pelvis) 골반안(Pelvic cavity) 두덩활(Pubic arch) 앞뒤지름(Conjugator diameter)	각 비골, 대건골, 고골, 고 슬, 슬빈, 연해 행, 행골, 경 노당골, 보골, 보
(2) 자유다리뼈(Bones of free lower limb) 넓다리뼈(Femur) 무릎뼈(Patella) 정강뼈(Tibia) 종아리뼈(Fibula) 발뼈(Bones of foot) 발목뼈(Tarsal bones) 목말뼈(Talus) 발꿈치뼈(Calcaneus) 발배뼈(Navicular bone) 안쪽쐐기뼈(Medial cuneiform bone) 중간쐐기뼈(Intermediate cuneiform bone) 가쪽쐐기뼈(Lateral cuneiform bone) 입방뼈(Cuboid bone) 발허리뼈(Metatarsal bone) 발가락뼈(Phalanges) 첫마디뼈(Proximal phalanges) 중간마디뼈(Middle phalanges) 끝마디뼈(Distal phalanges)	부골 종, 단 연골 경골

제3장 내장학(SPLANCHNOLOGY)

1. 소화계통(DIGESTIVE SYSTEM)

우리말 새용어	한의학 용어
입안(ORAL CAVITY) 입안뜰(Vestibule of mouth) 위입술(Upper lip) 인중(Philtrum) 아래입술(Lower lip) 볼(Cheek) 고유입안(Oral cavity proper) 입천장(Palate) 단단입천장(Hard palate) 물렁입천장(Soft palate)	구내 순 인중 순 옥당 옥당 옥당
침샘(Salivary glands) 큰침샘(Major salivary glands) 귀밀샘(Parotid gland) 덧귀밀샘(Accessory parotid gland) 혀밀샘(Sublingual gland) 턱밀샘(Submandibular gland)	
이(TEETH)	치
혀(TONGUE)	설
목구멍(FAUCES)	후련
인두(PHARYNX)	애, 인애
식도(ESOPHAGUS)	인로
위(STOMACH)	위
들문(Cardia) 날문(Pylorus)	위구, 분, 분문
작은창자(SMALL INTESTINE)	소장
샘창자(DUODENUM)	소장
간(LIVER) 오른간엽(Right hepatic lobe) 왼간엽(Left hepatic lobe) 네모엽(Quadratate lobe) 꼬리엽(Caudate lobe)	간 간 간 간 간
쓸개(GALLBLADDER) 온쓸개관/Common bile duct)	간담
이자(PANCREAS)	
빈창자(JEJUNUM)	
돌창자(ILEUM)	
큰창자(LARGE INTESTINE)	대장
막창자(CECUM)	
주름창자(COLON)	
곧창자(RECTUM)	
항문관(ANAL CANAL)	

2. 호흡계통(RESPIRATORY SYSTEM)

우리말 새용어	한의학 용어
코(EXTERNAL NOSE) 코안(Nasal cavity) 코곁동굴(Paranasal sinuses)	비, 천빈, 명당 비동 증혈당
후두(LARYNX) 반지연골(Cricoid cartilage) 모뿔연골(Arytenoid cartilage) 잔뿔연골(Corniculate cartilage) 쐐기연골(Cuneiform cartilage) 후두덮개(Epiglottis)	
기관(TRACHEA)	폐계, 후통, 통
기관지(BRONCHI)	후
허파(LUNGS) 오른허파(Right lung) 왼허파(Left lung)	폐 폐 폐
가슴안(THORACIC CAVITY)	흉
가슴세로칸(Mediastinum)	흉증, 흉골 흉증, 응증

3. 비뇨생식계통(UROGENITAL SYSTEM)

우리말 새용어	한의학 용어
비뇨기관(URINARY ORGAN) 콩팥(Kidney) 콩팥깡때기(Renal pelvis) 요관(Ureter) 방광(Urinary bladder) 요도(Urethra)	신 신 방광
남성속생식기관(INTERNAL GENITAL ORGANS OF MALE) 고환(Testis) 부고환(Epididymis) 부고환결체(Paradidymis) 정관(Derferent duct) 정낭(Seminal vesicle) 정삭막(Spermatic cord) 전립샘(Prostate) 망울요도샘(Bulbourethral gland)	음난, 난 고환 고환 고환 고환 고환 고환 고환 고환
남성바깥생식기관(EXTERNAL GENITAL ORGANS OF MALE) 음경(Penis) 남성요도(Male urethra) 음낭(Scrotum)	경수, 종근 종근 낭
여성속생식기관(INTERNAL GENITAL ORGANS OF FEMALE) 난소(Ovary) 자궁관(Uterine tube) 자궁(Uterus) 질(Vagina)	포 포 포 포
여성바깥생식기관(EXTERNAL GENITAL ORGANS OF FEMALE) 여성음부(Female pudendum) 불두덩(Mons pubis) 질어귀(Vestibule of vagina) 음해(Clitoris) 여성요도(Female urethra) 살(Perineum) 골반가로막(Pelvic diaphragm) 궁둥항문오목(Ischioanal fossa) 복막(Peritoneum)	옥문 고제골강, 옥문 옥문 옥문 옥문 옥문 옥문 옥문 옥문 모근

IV. 고 칠

해부학용어는 모든 의학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어의 해부학용어에서 탈피해 순수한 우리말로 만든 해부학용어⁷⁾가 1996년 대한해부학회에서 출간되어 앞으로는 우리말 새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원³⁾의 논문에 의하면 북한의 해부학용어중 골학의 일부분이 우리용어와 동일해서 다행이며, 또한 뼈명칭 뿐만 아니라 한약재도 한문이 아닌 우리말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장차 통일된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해부학용어의 동일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한의학에서의 해부학은 역사적으로 법적, 사회관습에 따라 사람해부를 금하게 되어 있어 오늘날의 서양해부학과 같이 해부를 할 수 없었으며, 자연히 해부학의 발달이 늦은것은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몸을 보고, 만져보고 해서 뼈명칭을 정했으며 병명에 따라, 어느 경우는 경혈자리와 연결지어 뼈명칭을 다르게 표현하여 중복된 부분도 있고해서 천체적으로 난해하였다.

한의학에 대한 특성을 지속시키면서, 방대한 양이지만 점진적으로 한의학의 기초가 되는 쓰기쉽고 편리한 통일된 한의학용어를 만드는것도 한의학의 발전을 앞당기는 하나의 계기가 아닐까 한다.

제1장 일반용어(GENERAL TERMS) 몸부분(PARTS OF BODY)

우리몸을 크게 머리(Head), 얼굴(Face), 목(Neck), 가슴(Chest), 배(Abdomen), 등(Back), 살(Perineum), 팔(Upper limb), 다리(Lower limb) 등으로 나누었으며, 제2장 골학에서 다시 부분부분 기술하겠다.

머리는 뇌(Brain)를 싸고 있으며, 해부학적인 정의는 어느 물체이든 맨가장자리의 불룩 튀어나온 부분은 머리, 바로 아래부분은 목. 그리고 남은 한가운데 부분은 몸통(Body)이라 칭한다. 한의학용어는 수, 두로 표현되었으며 우리말새용어에서는 따로 모든 뼈명칭에다 '— 부위'라고 세분화했다.

얼굴은 눈썹아래에서부터 귀의 앞쪽과 아래턱뼈(Mandible)의 아래각을 잇는 둥그스런 모양의 형태를 말하고 있으며, 눈썹위는 이마(Forehead

)에 해당된다. 한의학용어는 얼굴은 면, 눈부위(Orbital region)는 목, 코부위(Nasal region)는 비, 천빈, 명당, 입부위(Oral region)는 수, 순구, 육지, 눈아래부위(Infraorbital region)는 목 하로 표현했다. 볼부위(Buccal region)⁹⁾는 코·입을 가운데로 하고 양쪽의 넓은 부분이다. 뺨이라고도하고 따귀는 때릴때에 한해 쓰는 묘한 말이다. 웃을때 볼의 복판 부분이 움푹들어가는 것은 보조개, 조개볼이라고 하며 입꼬리당김근(Risorius m.)이 있을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한의학용어는 혁, 함, 광대부위(Zygomatic region)⁹⁾는 양쪽 눈초리 아래쪽으로 불룩 솟은 뺨을 말한다. 넓적한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나온 모습은 황색인종중에도 몽골리언의 특징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대뼈이하는 하관이라고 하고 이 부분이 아래로 뾰족하면 하관이 빨다고 한다. 그와 반대로 뺨에 살이 많아 하관이 평펴진해 보이면 '볼추구니'라고 한다. 한의학용어는 관, 관골로 표현되고 있다.

목은 맨 가장자리의 불룩 튀어나온 머리 바로 아랫부분으로 약간 자연스럽게 들어간 부분이다. 넓은부분에서 좁은부분으로 또는 좁은부분에서 넓은부분으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머리와 가슴을 이어주는 목, 아래팔(Forearm)과 손(Hand)을 이어주는 손목(Wrist), 종아리(Leg)와 발(Foot)을 이어주는 발목(Ankle)이 있다. 한의학용어는 경, 항이라고 하는데 앞목삼각(Anterior triangle of neck)은 경, 뒤목삼각(Posterior triangle of neck)과 목덜미부위(Nuchal region)는 항에 해당된다. 목덜미부위는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하고 목덜미가 두둑하면 힘끼나 쓴다고 하는 것이다.

가슴(Chest)은 가슴우리뼈(Bones of thorax)를 이루는 갈비뼈(Rib)와 복장뼈(Sternum) 그리고 젖부위(Mammary region), 겨드랑이부위(Axillary region)을 총칭한다. 한의학용어는 가슴은 흥, 젖부위는 유, 겨드랑이부위는 액, 액지, 각으로 표현한다. 가슴복판⁹⁾은 흥당이라 한다. 당도 가슴이란 자라같은 가슴인데, '치맛자락을 감아줘 어 흥당에 짹붙이고 …' 하는 식의 표현이 옛날글에 자주나오는 부분이다. 즉 넷째갈비뼈 사이에 있는 젖꼭지(Nipple)위치에서 가로쪽으로 복장뼈(Sternum)가 있는 부위이며, 바로 아래에 명치가 있다.

배(Abdomen)는 갈비아래부위(Hypochondric region)에서부터 두덩부위(Pubic region)까지를

말하며, 중간에 넷째허리뼈(4th Lumbar vertebra)에 있는 배꼽부위(Umbilical region)가 있다. 명치부위(Epigastric region)⁹⁾는 양 젖사이로 갈비뼈가 오목해지며 배로 이어지는 부분을 말한다. 누르면 뾰족하게 뼈끝이 짚인다. 허리뼈부위, 옆구리부위는 허리의 양 옆부분이다. 알았느냐는 표시로 꿍꿍 찔렀다는 곳이 여기다. 살굴부위(Inguinal region)는 살인대(Inguinal ligament)가 주행하는 부위이며, 두덩부위는 두덩뼈결합(Pubic symphysis)이 있고 두덩털(Pubic hair)이 있는 곳이다. 한의학용어는 갈비아래부위는 흥협, 명치부위는 심복, 옆구리부위는 계협이라 한다. 배꼽부분은 제로 표현되며 제를 중심으로 위쪽부위를 상복, 아랫쪽부위를 하복이라 한다.

살(Perineum)은 배와 다리의 경계부 즉, 양다리가 갈라지는 부분이며 우리 고유의 씨름을 할 때 살바가 닿는 부분이다. 한의학용어는 찬으로 표현된다.

팔(Upper limb)은 위팔(Arm), 아래팔(Fore arm), 손목(Wrist), 손(Hand)으로 구별할 수 있다. 위팔은 앞으로는 V 자형의 팔오금(Cubital fossa)과 뒤로는 팔굽(Elbow)까지를 경계로 하고 있다. 팔오금과 대치되는 곳은 무릎(Knee)의 뒷면에서 볼 수 있는 다리오금(Popliteal fossa)이다.

아래팔은 2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안쪽(Medial)으로 자뼈(Ulna), 가쪽(Lateral)으로 노뼈(Radius)가 있다.

손목은 1열 4개씩 2열 8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굽히고 펴는 작용을 주로 한다.

손은 발(Foot)과 똑같이 19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등(Dorsum of hand)과 손바닥(Palm of hand)으로 되어 있다. 손바닥은 다시 엄지두덩(Thenar eminence)과 새끼두덩(hypothenar eminence)으로 나눈다. 손바닥의 복판을 장심⁹⁾이라고 하며, 여기가 두툼해야 좋다고 한다. 여기만 따뜻하면 추위를 견딘다하여 불가에 가면 자연 여기를 찌게 된다.

손가락(Fingers)은 엄지손가락(Thumb), 집게손가락(Index), 가운데손가락(Middle finger), 반지손가락(Ring finger), 새끼손가락(Little fing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과 같이 손가락바닥(Palmar surface of fingers)과 손가락등(Dorsal surface of fingers)으로 되어 있다.

한의학용어는 팔(Upper limb)은 상지, 위팔

(Arm)은 노, 팔굽(Elbow), 팔오금(Cubital fossa)은 주라고 했다. 아래팔(Forearm)은 비, 손목(Wrist)은 완, 손(Hand)은 수, 손등(Dorsum of hand)은 수배, 손바닥(Palm of hand)은 장으로 표현했다. 손바닥중 엄지두덩(Thenar eminence)은 수지로 칭했으며, 엄지손가락(Thumb)은 모지, 대지, 집게손가락(Index)은 쇠지, 대지차지, 가운데손가락(Middle finger)은 중지, 반지손가락(Ring finger)은 무명지, 소지차지, 새끼손가락(Little finger)은 소지로 표현했다.

다리(Lower limb)는 볼기(Gluteal region), 엉덩이(Coxae), 넓적다리(Thigh), 무릎(Knee), 종아리(Leg), 발목(Ankle), 발(Foot)로 구별할 수 있다.

볼기는 허리와 다리사이 양쪽에 불룩하게 솟은 부분으로서 위는 엉덩이, 아래는 궁동이로 구분한다.

Coxae의 원래뜻은 hip을 가리키며 따라서 우리말로는 엉덩이와 궁동이의 두가지뜻을 다 가진 부위로 해석되나 한글로는 더 세분하여 그중에서도 위쪽을 가리킨다는 뜻에서 엉덩이로 정하였다.

넓적다리는 볼기에서 무릎사이를 말하며 생김새를 따라 넓적다리라고 하였다.

무릎의 뒤, 구부리면 접히는 부분으로 다이아몬드 형의 다리오금(Popliteal fossa)이 있다. 맥없이 섰는 사람을 몰래 다리오금을 치면 자칫 주저앉을 뻔한다. 그래서 남의 하는 말의 허점을 찌는 것을 '오금을 박는다'고 한다. 또 오금을 펴야 일어서수 있기 때문에 누구앞에서 절절매면 '오금을 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⁹⁾

종아리는 무릎아래에서부터 발목까지의 사이를 말하는데 뒤쪽에서 장딴지(Calf)가 있다. '종아리를 맞는다'고 할 때가 바로 이 부위이다.

발은 손과 같은 뼈의 수와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발등(Dorsum of foot), 발바닥(Sole of foot)을 볼 수 있다. 단지 발목(Tarsus)에서만 손목을 이루는 뼈보다 1개 적은 7개의 뼈로 되어 있다.

발가락(Toes)은 엄지발가락(Great toe), 둘째발가락(Second toe), 셋째발가락(Third toe), 넷째발가락(Fourth toe), 새끼발가락(Little toe)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의학용어는 다리(Lower limb)는 하지, 각, 볼기(Gluteal region)는 둔, 엉덩이(Coxae)는 묘, 넓적다리(Thigh)는 고, 무릎은 슬, 무릎의 뒷면에서 볼 수 있는 다리오금(Popliteal fossa)은 괵이라고 표현했다. 종아리(Leg), 장딴지(

Calf)는 천, 발목(Ankle)은 완, 발(Foot)은 족, 발꿈치(Heel)는 신발을 신을 때 맨 끝에 닿는 부위 즉, 발꿈치뼈 융기(Calcaneal tuberosity)가 있는 부위를 혼, 발등(Dorsum of foot)은 부족부, 발바닥(Sole of foot)은 족저라고 하였다. 발목(Tarsus)은 완, 발허리(Metatarsus)는 부골이라 했으며 엄지발가락(Great toe)은 족모지, 대지, 족대지, 둘째발가락(Second toe)은 (족모지)차지, 대지차지, 셋째발가락(Third toe)은 중지, 족중지, 넷째발가락(Fourth toe)은 (족소지)차지, 새끼발가락(Little toe)은 족소지로 표현하였다.

제2장 골학(OSTEOLOGY)

뼈대계통(SKELETAL SYSTEM)

일반용어(General terms)에서 뼈를 나타내는 한문의 골은 모두 뼈로 바꾸었다. 뼈막(Periosteum), 긴뼈(Long bone), 짧은뼈(Short bone), 납작뼈(Flat bone), 공기뼈(Pneumatic bone), 뼈끝(Epiphysis), 뼈몸통(Diaphysis) 등으로 표현했다.

1) 머리뼈(Skull)

머리뼈는 모두 22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뇌를 싸고 있는 뇌머리뼈(Neurocranium) 8개와 얼굴을 이루고 있는 얼굴머리뼈(Facial cranium) 14개이다. 숫구멍(Fontanelles)은 머리뼈가 아물지 않아 말랑말랑하게 남은 곳을 말하며, 눈확(Orbit)은 눈의 우뚝하게 패어져 들어간 곳을 가리키는 말로 속어로 눈구멍이란 뜻이다.

(1) 날개머리뼈(BONES OF SKULL) 중 마루뼈(Parietal bone)는 머리마루(Vertex)를 이루는 뼈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며, 머리에서 가장 높은 점으로 키를 쟈 때 이점을 이용한다. 뒷통수뼈(Occipital bone)의 가운데 끝 튀어나온 부위는 바깥뒷통수뼈융기(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이고, 반대로 얼굴편에서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위는 이마뼈융기(Frontal eminence)이다. '앞짱구'라고 하는데가 바로 이마뼈융기, '뒤짱구'는 바깥후두융기 부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나비뼈(Sphenoid bone)는 뼈의 모양이 위에서 보면 날개를 편 나비를 닮았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관자뼈(Temporal bone)는 관자놀이(Pterion)를 이루는 중요한 뼈의 하나이며, 보습뼈(Vomer)는 농사지울 때 쓰는 보습(챙기날)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입천장을 이루는 입천장뼈(Palat-

ine bone), 구강과 치아를 형성하는 위턱뼈(Maxilla), 아래턱뼈(Mandible), 목에 있으며 크고 작은 뺨이 달린 뼈인 목뿔뼈(Hyoid bone)를 볼 수 있다.

한의학용어는 뼈대계통에 대한 일반용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몸통뼈대(Axial skeleton)에서 머리뼈(Skull)는 로, 숫구멍(Fontanelles)은 천문, 뇌호라고 표현했다. 날개머리뼈(Bones of skull) 중 마루뼈(Parietal bone)는 산각골, 이마뼈(Frontal bone)는 능운골, 뒷통수뼈(Occipital bone)는 침골, 침, 후산골, 두횡골이라 했다. 관자뼈(Temporal bone)는 빈골, 아래턱뼈(Mandible)는 이골, 이, 또는 대영혈이 있는 부위라해서 대영지골이라고도 표현하였다.

2) 척주(VERTEBRAL COLUMN)

33개의 척추뼈(Vertebra)로 구성된 72-75cm 구조물로, 우리몸의 기동역할을 하며 성인에서 4개의 굽이 (Curvature)가 있다. 목뼈(Cervical vertebrae), 등뼈(Thoracic vertebrae), 허리뼈(Lumbar vertebrae), 엉치뼈(Sacral vertebrae), 꼬리뼈(Coccygeal vertebrae)로 되어 있다. 목뼈 중 고리뼈(Atlas), 중쇠뼈(Axis), 솟을뼈(Vertebra prominens)가 특징적이다. 중쇠뼈는 첫번째 목척추뼈인 고리뼈와 맞물린 모양이 맷돌의 중쇠모양과 비슷한데서 따온 말이고, 엉치뼈 중 엉치뼈꽃(Promontory)은 불쑥 튀어나온 곳을 표현한다.

한의학용어는 척주(Vertebral column)는 척, 척추뼈(Vertebra)는 척추, 추골, 려골, 목뼈(Cervical vertebrae)는 경골, 천추골, 시태골이라 했고 목뼈중 특징적인 고리뼈(Atlas)와 중쇠뼈(Axis)는 항골이라 표현하였다. 솟을뼈(Vertebra prominens)는 대추, 대추골, 상추, 상절, 저골이라는 여러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등뼈(Thoracic vertebrae)는 배골, 허리뼈(Lumbar vertebrae)는 요골, 요추라고 표현하였다.

3) 가슴우리뼈(BONES OF THORAX)

가슴우리(Thorax)는 심장과 허파(Lung)를 보호해주는 등뼈, 갈비뼈(Ribs), 갈비뼈연골(Costal cartilage), 복장뼈(Sternum)로 구성된 새장과 같은 우리(Cage)이며, 위는 좁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진 구조물이다. 목아래패임(Jugular notch)은 복장뼈자루(Manubrium of sternum)의 윗부분에 얹고 약간 들어간 부위이며 목의

뿌리(Root)지점이기 때문에 쉽게 촉지된다. 대략 T.V. 3 위치에 있다.

한의학용어는 가슴우리뼈(Bones of thorax)는 흉, 흉골, 복장뼈(Sternum)는 응중골, 칼모양의 칼돌기(Xiphoid process)는 설골, 구미, 명치각(Infrastral angle)은 기골이라고 표현하였다.

2. 팔다리뼈대(APPENDICULAR SKELETON)

1) 팔뼈(BONES OF UPPER LIMB)

(1) 팔이음뼈(Shoulder girdle)

가슴, 등과 팔을 이어주는 뼈는 어깨뼈(Scapula), 빗장뼈(Clavicle)가 있으며, 어깨뼈에서 가장 높은 곳이 봉우리(Acromion)이다. 웃을 맞출 때 팔의 기장이 이곳 봉우리에서부터 자뼈(Ulna)와 노뼈(Radius)의 뾰돌기(Styloid process)까지이다.

(2) 자유팔뼈(Bones of free upper limb)

위팔뼈(Humerus), 노뼈(Radius), 자뼈(Ulna)이고, 손목뼈(Carpal bones)를 이루는 8개의 뼈는 손배뼈(Scaphoid bone), 반달뼈(Lunate bone), 세모뼈(Triquetral bone), 콩알뼈(Pisiform bone), 큰마름뼈(Trapezium), 작은마름뼈(Trapezoid bone), 알머리뼈(Capitate bone), 갈고리뼈(Hamate bone)이다. 물에 떠 다니는 배모양의 손배뼈는 발목뼈를 구성하는 뼈에서는 발배뼈(Navicular bone)라고 부른다. 손가락(Phalanges)은 첫마디뼈(Proximal phalanges), 중간마디뼈(Middle phalanges), 끝마디뼈(Distal phalanges)라고 표현한다.

한의학용어는 팔이음뼈(Shoulder girdle)중 어깨뼈(Scapula)는 감, 견감, 봉우리(Acromion)는 우골, 견우, 빗장뼈(Clavicle)는 횡골, 주골이라고 한다. 손목뼈(Carpal bones)는 당골, 완, 손가락뼈(Phalanges)는 모두 지골이라고 한다.

2) 다리뼈(BONES OF LOWER LIMB)

(1) 다리이음뼈(Pelvic girdle)

배와 다리를 이어주는 볼기뼈(Hip bone)는 엉덩뼈(Ilium), 궁동뼈(Ischium), 두덩뼈(Pubis)가 있다.

(2) 자유다리뼈(Bones of free lower limb)

넓다리뼈(Femur), 무릎뼈(Patella), 정강뼈(Tibia), 종아리뼈(Fibula)가 있고, 발목뼈(Tarsal bones)를 구성하는 7개의 뼈는 목말뼈(Talus), 발꿈치뼈(Calcaneus), 발배뼈(Navicular bone), 안쪽쐐기뼈(Medial cuneiform bone

), 중간쐐기뼈(Intermediate coneiform bone), 가쪽쐐기뼈(Lateral cuneiform bone), 입방뼈(Cuboid bone)이다. 무릎뼈를 우리조상들은 물을 떠먹을때 쓰는 표주박보다 작은 종지모양이라 고하여 종지뼈라고도 불렀다. 목말뼈는 종아리의 두뼈인 정강뼈와 종아리뼈를 목말 태우듯이 얹고 있는 뼈모양이라하여 붙여졌다.

한의학용어는 자유다리뼈(Bones of free upper limb)는 각, 넓다리뼈(Femur)는 비골, 대건골, 고골, 고, 무릎뼈(Patella)는 슬, 슬빈, 연핵, 정강뼈(Tibia)는 행, 행골, 경, 종아리뼈(Fibula)는 노당골, 보골, 보, 발목뼈(Tarsal bones)는 부골, 발꿈치뼈(Calcaneus)는 종, 단, 발배뼈(Navicicular bone)는 연골, 입방뼈(Cuboid bone)는 경골이라고 부른다.

제3장 내장학(SPLANCHNOLOGY)

1. 소화계통(DIGESTIVE SYSTEM)

입안(ORAL CAVITY)

위입술(Upper lip), 아래입술(Lower lip), 입천장(Palate)을 이루는 단단입천장(Hard palate)과 물렁입천장(Soft palate)이 있고, 침샘(Salivary glands)에는 귀밀샘(Parotid gland), 혀밀샘(Sublingual gland), 턱밀샘(Submandibular gland) 등이 있다. 이(Teeth), 혀(Tongue), 위(Stomach)에는 들문(Cardia)과 날문(Pylorus)이 있다. 들문은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는 문을 줄인말이고, 날문은 위에서 샘창자(Duodenum)로 나가는 문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작은창자(Small intestine)는 샘창자, 빈창자(Jejenum), 들창자(Ileum)로 구성되어 있으며, 샘창자는 십이지장의 고유한 우리말이며 위날문에 맞닿은 작은창자의 일부분으로 쓸개즙과 아자액이 분비되어 소화를 도와주는 부위를 의미하며, 빈창자는 공장의 고유한 우리말이며 먹은 음식이 다 삭아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창자를 의미한다. 들창자는 회장의 고유한 우리말이고 “들”的 뜻은 들뜰말린 의미이며, 그리고 당분간 샘창자는 십이지장, 빈창자는 공장, 들창자는 회장과 같이 쓰기로 하였다. 쓸개(Gallbladder), 이자(Pancreas)로 표현되고, 큰창자(Large intestine)는 막창자(Cecum), 주름창자(Colon), 곧창자(Rectum), 항문관(Anal cana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막창자는 맹장의 고유한 우리말이며, 주름창자는 결장의 전체적인 모양에서 따온말이며, 곧창자는 직장의 고유한 우리말로써 곧은창자이나

"곧은"을 줄여 곧창자로 쓰기로 하였다. 그리고 당분간 막창자는 맹장, 주름창자는 결장, 곧창자는 직장과 같이 쓰기로 하였다.

한의학용어는 입안(Oral cavity)은 구내, 입술(Lip)은 순, 인중(Philtrum)은 한의학용어를 그대로 따른 인중으로 하였으며, 입천장(Palate)과 같이 단단입천장(Hard palate), 물렁입천장(Soft palate) 모두를 옥당으로 표현하였다. 이(Teeth)는 치, 혀(Tognue)는 설, 목구멍(Facues)은 후련, 인두(Pharynx)는 애, 인애, 위(Stomach)의 들문(Cardia)은 위구, 분, 분문, 작은창자(Small intestine)는 소장, 쓸개(Gall bladder)는 담, 큰창자(Large intestine)는 대장이라고 하였다.

2. 호흡기계통(RESPIRATORY SYSTEM)

코(External nose)는 코안(Nasal cavity), 코곁동굴(Paranasal sinuses)이 있으며 후두(Larynx), 기관(Trachea), 기관지(Bronchi), 허파(Lungs), 가슴안(Thoracic cavity), 가슴세로칸(Mediastinum)이 있다. 허파에는 오른허파(Right lung)와 왼허파(Left lung)가 있다.

한의학용어는 코(External nose)는 비, 천빈, 명당, 코안(Nasal cavity)은 비동, 코곁동굴(Paranasal sinusee)은 중혈당이라고 한다. 기관(Trachea)은 폐계, 후통, 통, 기관지(Bronchi)는 후, 허파(Lung)는 폐, 가슴안(Thoracic cavity)은 흉, 흉골, 가슴세로칸(Mediastinum)은 흉증, 응증이라고 표현하였다.

3. 비뇨생식기계통(UROGENITAL SYSTEM)

비뇨기관(Urinary organ)은 콩팥(Kidney), 요관(ureter), 방광(Urinary bladder), 요도(Urethra) 등으로 구성된다.

남성속생식기관(Internal genital organs of male)에는 고환(Testis), 정삭막(Spermatic cord), 전립샘(Prostate), 망울요도샘(Bulbourethral gland) 등이 있다.

여성속생식기관(Internal genital organs of female)의 자궁관(Uterine tube), 여성바깥생식기관(External genital organs of female)의 불두덩(Mons pubis), 질어귀(Vestibule of vagina), 살(Perineum), 골반가로막(Pelvic diaphragm), 궁둥항문오목(Ischioanal fossa)이 새로운 명칭으로 표현된다.

한의학용어는 콩팥(Kidney), 콩팥깔대기(Ren

al pelvis)는 신, 방광(Urinary bladder)은 한의학용어를 그대로 따른 방광이라 하였으며, 남성속생식기관(Internal genital organs of male)의 고환(Testis)은 음난, 난, 남성바깥생식기관(External genital organs of male)의 음경(Penis)는 경수, 또는 음경과 요도(Urethra)를 합해서 중근이라고하고 음낭(Scrotum)은 낭이라 표현하였다.

여성속생식기관(Internal genital organs of female)의 난소(Ovary), 자궁관(Uterine tube), 자궁(Uterus), 질(Vagina) 모두를 포라고 표현하였고 여성바깥생식기관(External genital organs of female)의 불두덩(Mons pubis), 질어귀(Vestibule of vagina), 음핵(Clitoris), 요도(Urethra), 살(Perineum) 등을 모두 옥문이라고 표현하였다.

참 고 문 헌

1. 하야시하지메 : 동양의학은 서양과학을 뒤엎을 것인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철학분과, 서울, 보광재, pp.39-46, 1996
2. 정인혁 : 해부학용어(그기원과 뒷이야기) pp. 1-71, 1992
3. 원호연 : 남북한의 표면해부학 용어비교와 개정시안, 체질인류학회지, Vol. 7(2), pp. 259-266, 1994
4. 이금준 : 동서의학해부학용어에 관한 비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9
5. 조한국 : 체표 및 골격부위의 한의학해부학용어에 대한 고찰,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1
6. 박태호 : 인체부위별 명칭에 대한 동서의학적 비교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7. 대한해부학회 : 해부학용어, 서울,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1996
8. 홍원식 : 황제내경 영추 역해, 서울, 전통문화 연구회, 1995
9. 이훈종 : 민족생활어사전, 서울, 한길사 pp. 11-32, 1992